

문화적 자기 이해를 위한 창의융합교육 사례 연구 D 대학 [현대사회와 여성] 학습자의 자문화기술지 분석

신난희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조교수¹⁾

초록

본 논문은 D 대학의 [현대사회와 여성] 학습자들이 가족 여성 문화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작업을 통하여 자기 삶의 서사 내러티브를 성찰적으로 재구성하며 깊은 문화적 자기 이해를 실현해 가는 과정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자문화기술지 학습 과정은 사전학습-자문화기술지 컨셉노트 작성-자문화기술지 최종보고서 작성의 3단계로 진행되었다. 사전 학습에서는 비폭력·피벗 원리 및 회복적 갈등 중재 대화모임 기법을 학습하였다. 영화 속 사례에 관한 나눔을 통하여 개인의 서사 내러티브를 다루는 경험을 쌓았다. 자문화기술지 본 작업은 컨셉노트, 컨셉노트 발전시키기, 최종보고서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예시 파일을 제공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컨셉노트 작성부터 최종보고서 작성까지 매 단계에서 강사 및 동료 학습자가 상호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다. 분석에 의하면, 학습자들은 자문화기술지 작업을 통하여 자신이 당연하게 생각하던 가치나 행위 관행이 문화적으로 구성되었음을 자각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자신의 존재양식에 영향을 미친 사회문화적 맥락과 구조 및 그 작동방식을 인식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 속에서 학습자들은 그동안 자신이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며 순응하던 가족과 사회의 여성 관련 가치와 문화 양식을 비판적으로 통찰하고 분석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 자문화기술지 작업은 학습자가 문화적 구성체로서 자아에 관하여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작업이 되었다. 또한 학습자 스스로 자기정체성을 회복하거나 희망하는 자기정체성의 상태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나아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조건과 맥락을 분석하고 통찰하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였다.

키워드

문화적 자기이해, 창의융합교육, 자문화기술지, 비폭력·피벗원리, 회복적 갈등 중재, 가족 여성 문화

Manuscript received December 1, 2025 / Revision received December 26, 2025 / Accepted December 28, 2025
1) peace2018@cu.ac.kr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ShareAlike 4.0 International License

1. 문제제기

본 논문은 D 대학의 교양강좌 [현대사회와 여성] 학습자들이 가족 여성 문화에 관한 자문화 기술지 작업을 통하여 자기 삶의 서사 내러티브를 성찰적으로 재구성하며 깊은 문화적 자기 이해를 실현해 가는 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자문화기술지 작업은 인류학에서 발달해 온 문화기술지(ethnography) 연구방법론을 연구자 자신의 삶에 적용한 연구 작업으로서 개인 서사 내러티브를 성찰적으로 재구성하고 여기에 작동해 온 사회문화적 맥락을 분석하고 해석하며 의미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이 교양 강좌 학습자의 핵심 학습 과정으로서 자문화기술지 학습을 주목하는 것은 학습자 및 학습 환경에게 관찰되는 두 가지 특성에서 기인한다. 하나는 본 강좌 학습자 대부분이 2000년대 전후 시기에 출생한 Z세대(연장흙, 2025, p. 7)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 기술혁명, AI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 창의융합 역량 자체가 학습자의 깊은 자기 이해가 전제될 때 비로소 출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Z세대의 생활세계는 모순적인 두 흐름이 동시에 작동하는 세계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세계 패권 구축을 둘러싼 열강들의 충돌이 촉발하는 불확실성이다. 이것은 전 지구적 사회경제질서를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구축해온 미국 중심의 단일체제에 대한 도전과 균열에서 일어나는 시대 변동의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이들의 생활세계를 주도하는 디지털 기술혁명이다. 이들은 바로 21세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과학기술의 변혁 과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점이다. 사이버 세계, AI 테크놀로지 세계는 이들에게 호흡이며 생존세계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계는 Z세대가 자유자재로 탐색하고 향유하며 회복하는 생명 자체이며 자기정체성의 원천이라는 것이다(신동형, 2021; 윤가영, 신주량, 2022; 이인수, 유지호, 2023).

21세기 인류 사회가 이와 같은 기술 혁명의 신세기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세계경제포럼(WEF), 유럽연합(EU) 및 세계 여러 석학들 속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들은 변혁적 시대의 기세를 예측하고 이 시대를 이끌어 갈 미래 인재에게 요청하는 필수 역량을 제시해 왔다(손현주, 강정인, 2019, p. 181). 창의융합 역량은 바로 이와 같은 미래 인재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핵심적 역량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학습자가 이와 같이 중대한 개인과 시대의 필요와 요구를 주체적이며 창의적으로 통찰하고 이끌어갈 내적 역량의 함양에 있어서 현재 이들의 학습 생태계는 역설적으로 반인권적이며 반혁신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현재 이들의 생활세계는 태생적으로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체제가 지향하는 가치, 자본 중심의 도구적 세계관에 결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심각한 상황은 자신이 제도, 사회경제, 문화적 규율에 총체적으로 결박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조차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청년 학습자들이 자신의 내면적 필요와 지향에서 스스로 자각한 좋은 삶, 옳은 삶을 탐색하고 성찰하며 선택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거나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청년 학습자 일반은 모든 존재 가치가 자본 생산의 도구로 평가되고 경쟁력 있는 도구됨의 책임을 온전히 개인에게 전가하는 비도덕적이며 착취적인 현 실태의 질곡 속에 있다는 것이다. 청년 학습자들은 오히려 주체적이며 진취적인 성장과 실천의 길로 나아가지 못한 채 자기 소외, 사회적 변화와 도태 가능성의 공포와 불확실성에 짓눌려 있다는 것이다.

청년 학습자들이 처해 있는 다중 질곡 상황은 먼저 사회구조적 차원의 반인권적 폐해로 인한 손상, 자아 훼손과 폐기의 고통과 상흔을 직면하고 위로하며 애도하는 내적 치유 작업이 우선될 필요를 제기한다. 그리고 고통과 상흔의 생성 메커니즘에 관한 비판적 통찰과 분석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를 제기한다. 바로 자기 소외의 질곡에 청년들을 길들이고 고착화하는 잔혹한 자아 메커니즘을 스스로 느끼고 발견하고 해부하는 자기 이해의 작업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누가, 어떤 권력이, 무엇을 위해 Z세대 청년 학습자의 생활세계를 현재와 같이 설계하고 강제하는가, Z세대 청년 학습자의 오늘날 생활세계는 이들에게 어떤 지평을 제시할 수 있으며,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가에 관하여 청년 학습자 스스로 비판적 인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작업을 문화적 구성체로서 자기 인식, 자기 이해라는 관점으로 그리고 이와 같은 문화적 자기 이해 작업으로서 자문화기술지 작업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배경

2.1. 기존 연구 검토

2.1.1. 문화적 자기 이해의 학문적 맥락

본 논문은 Z세대 청년 학습자들이 ‘어떤 삶이 옳은 삶이고 좋은 삶인가’, ‘어떤 삶이 스스로 추구할 가치가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또 어떤 삶을 살길 바라는가’ 등 존재로서 인간이 추구할 좋은 삶, 옳은 삶에 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이와 같은 좋은 삶, 옳은 삶에 관한 논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다.

대학(大學) 八條目 수신(修身)에 의하면, 몸과 마음을 닦아 올바른 품성과 지식과 도덕심을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수신(修身)은 학문이나 기술을 연마하고 덕성 함양 혹은 높은 품격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스도교의 황금률 역시 자기급인(推己及人), 기소불욕(己所不欲勿施於人)으로서 자기의 사정을 미루어 남에게 사랑을 미치게 하며 또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미루지 말도록 경계한다(성해준, 2023, p. 137). 또한, 개인과 공동체의 좋은 삶, 옳은 삶은 순환적 연계성을 이루고 있다. 출발점으로서 인간의 자기 인식은 도덕적 인간 행위, 인간성의 근거이며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서 자기 확신을 담고 있다(고대혁, 1999, p. 151).

김세희에 의하면, 철학적 실천이며 존재 양식을 변화시키는 행위로서 앎을 접근하는 소크라테스에게 자기 인식, 자기 배려는 더 나은 삶으로 존재를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인식, 자기 배려는 바로 수련과 기술을 요청하는 철학적 실천이 된다. 푸코(Foucault)는 존재론적 자기 인식을 논의함에 있어서 자기 내면의 인식들을 통하여 주체적 세계 인식을 생성하는 인간의 놀라운 특성을 주목하고 ‘사유가 어떻게 현재의 우리로 만드는가’ 질문한다. 그리고 이 작업을 인간 자신이 내면과 외부 세계와 맺고 있는 진리, 의무, 관계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김세희, 2018, p. 71).

세계가 사유하는 인간의 주체 활동을 통하여 구현된다는 관점은 인간의 사유를 추동하는 인간 내적인 동인에 관한 탐구의 중요성과 함께 인간의 사유 작용이 인간 외부의 세계와 상호 작용하는 정밀한 과정에 관한 탐구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바로 인간의 자유로운 존재 양식이 사실은 특정 계급의 이해, 혹은 문화적 압력에 의하여 구축된 가치, 제도, 권력, 세계관 등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생성, 고착화된 문화적 구성물이라는 것이다.

본 논문이 추구하는 문화적 자기 이해는 이와 같이 인간의 존재론적 구현 양식에 스며 있는 문화적 구성성을 주목하고 성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문화적 자기 이해 학습은 바로 한 개인의 존재 양식의 출현과 지속에 관계해 온 모든 차원의 관계 구조 속에서 현재의 자기 존재 양식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며 해석하고 의미화 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본 논문은 자문화기술지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이와 같은 문화적 자기 이해 학습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1.2. 자문화기술지

자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는 19세기~20세기 제국주의 열강 출신 인류학자들이 식민지 원주민의 삶과 문화를 연구하며 개발한 질적연구방법, 문화기술지(ethnography)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원주민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하여 인류학자들은 이들의 문화 전체를 관찰하고 기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연구자의 이론적 작업을 위한 자료 수집 성격이 강하던 문화기술지 연구 방법은 1975년 하이더(Heider)의 Dani족 연구 논문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제시되

었다. 바로 연구 대상자의 구술 자료는 연구 대상자 각자의 개인 서사, 개인 삶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Heider, 1975).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하야노(Hayano)에 의하여 다시금 연구자의 삶 자체에 담긴 문화적 맥락에 관한 성찰 필요성을 제기하며 오늘날의 자문화기술지 관점으로 정립되었다(Hayano, 1979; 1982).

자문화기술지 관점은 기본적으로 연구 대상인 연구자 자신이 문화적 구성물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자문화기술지 작업은 연구자 자신이 어떤 문화적 서사를 살아왔고 이 과정에서 어떤 문화적 작용이 일어났는지, 생활세계에 작동하는 가치, 제도, 권력, 세계관 등 다차원적 맥락이 어떤 총체적 작용과 의미화 과정을 이끌었는지, 연구자 자신은 이 과정에서 어떤 행위성을 구현했는지 분석한다. 이와 같이 문화적 구성체로서 자아를 직면하고 성찰하며 삶의 의미를 해석하는 비판적 작업이 바로 자문화기술지 작성 과정이다. 이런 점에서 자문화기술지는 개인 서사를 텍스트로 하는 내러티브 연구, 생애사 연구 등과 같은 결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다루는 방식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문화적 구성체로서 개인 서사 과정에 발생하는 자아와 문화 사이의 상호주관적 관계성과 역동성을 성찰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는 자문화기술지 작업은 개인과 사회문화 간의 상호작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박순용 외, 2010, p. 59). 또한, 개인 생애 경험에 관한 반성적이며 성찰적인 문화 해석 작업으로서 사회구조적, 문화정치적 맥락을 총체적이며 비판적으로 다룬다. 개인 경험의 내러티브 자체 가치와 함께 고유하고 특수한 내러티브 생산의 메타 맥락, 사회 공동체 차원의 관계와 작용을 분석하고 상호주관적 의미를 해석한다(Reed-Danahay, 1997; Russell, 1999; 이동성, 2012, p. 9).

그동안 국내 자문화기술지 연구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교육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등 여러 분야에서 나오기 시작하여(이동성, 2006), 600편이 넘는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 2010년대 중반부터는 자문화기술지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김수안, 김명찬, 2021; 이동성, 2016; 이지연, 홍재명, 2024; 하정미, 최문경, 2016). 최근에 이르러서는 교수자 입장에서 학교 수업을 운영한 경험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연구도 시작되고 있다(김성천, 2025; 김연숙, 전미경, 2025; 신난희 외, 2024; 정선희, 2025). 본 논문은 자문화기술지 학습 자체를 수행한 학습자의 관점에서 자문화기술지 학습 과정과 학습자의 변화 과정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1.3. 학습자의 미래 역량으로서 성찰적 문해력 및 글쓰기

자문화기술지 작업의 학습 필요성을 제기하는 또 다른 맥락은 현재 Z세대 학습자들이 태어나서 성장한 디지털 기술 혁명의 변혁적 생활 생태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네스코

(UNESCO), 세계경제포럼(WEF), 유럽연합(EU) 등 우수한 세계 기구에서 현대 사회의 변혁 과정을 주목하며 이 시대를 이끌 미래 세대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DeSeCo Project(2005, p. 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 p. 11)에서 ‘상호교감하며 도구 사용하기, 이질적인 집단에서 상호작용 하기,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등의 3대 핵심 역량 범주를 제시하였으며, Education 2030(OECD, 2018)에서는 환경적 도전, 경제적 도전, 사회적 도전을 맞고 있는 미래 사회의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을 주목하고 미래 세대가 함양한 역량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긴장과 딜레마의 조정, 책임감 등을 변혁적 역량으로 제시하였다(홍지희, 2023, p. 132).

유네스코(Marope et al., 2017, p. 12)도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력, 호기심, 메타인지, 디지털, 기술, ICT 역량, 기초, 미디어, 정보, 금융 및 과학 문해력 및 수리력, 문화 간 역량, 리더십, 세계시민의식, 진취성, 자기주도성, 끈기, 책임감, 책무성, 적응력, 학문적 소양, STEM 사고방식 등 20여 개의 핵심 역량을, 2018년 직업의 미래(World Economic Forum, 2018, p. 12)에서는 능동적 학습과 복합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창의성, 리더십 및 사회적 영향, 문제 해결, 감정 지능, 사용자 경험, 서비스 지향성, 협상 능력 등을 핵심 역량으로 제시하였다.

유럽연합(Sala et al., 2020, p. 20; 최숙영, 2024, p. 26) 역시 개인적, 사회적, 학습을 위한 학습의 3개 범주에서 자기 조절, 유연성, 웰빙, 공감, 의사소통, 협업, 마인드셋, 비판적 사고, 학습 관리 역량 등을 핵심 역량으로 제시하였으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2020, p. 36) 또한 분석적 사고와 혁신, 활동적 학습과 학습 전략, 창의성, 독창성, 주도성, 기술 설계 및 프로그래밍, 비판적 사고와 분석, 복잡한 문제 해결, 리더십과 사회적 영향력, 감정 지능, 추론, 문제 해결, 아이디어 도출, 시스템 분석 및 평가 역량을 핵심역량으로 제시하였다.

한국 교육계 역시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기의 혁신적 사회경제시스템을 구축할 핵심 인재가 갖춰야 할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은(2019, p.140)은 자기 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윤정진 외(2021, pp. 12-13)는 창의 역량, 인성 역량, 공동선 역량, 융복합 역량,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등을 핵심 역량으로 제시하였다.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2022, pp. 11-12) 역시 자기 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제시하였다. 최숙영(2024, p. 27) 또한 창의성, 혁신, 비판적 사고, 지식정보 가치판단력, 협업, 협상 능력, 의사소통, 복합적 문제 해결, 시스템 사고, 융합, 통합 통찰력, 디지털 리터러시, AI 리터러시, 감정, 인성, 공감, 인지적 유연성, 기술 변화 적응력, 지속적 학습, 학습관리, 자기 결정, 판단 및 의사결정, 자기 조절, 메타인지, 성찰, 마음의 습관, 자기 관리 등 학습자들이 함양해야 할 미래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이 주목하는 것은 이와 같이 증대한 시대적 요청과 Z세대의 실제 학습 상황 사이의 부조화 여부이다. 과연 Z세대 청년 학습자들은 이와 같이 성찰적이고 비판적이며 총체적인 학습의 요구에 매력과 필요를 느끼고 있을까? 그리고 주체적이고 충만하게 관련 학습을 경험하고 있을까? Z세대의 문화 감수성과 인지 감각은 이미지와 영상 친화적이며 빠르고 감성적이며 직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학습 생태계가 현재 대학 교육과정에 충분히 구축되어 있을까?

특히 논의되고 있는 핵심 미래 역량은 무엇보다 학습자의 내면적이고 주체적인 학습 참여와 몰입이 요구되는 학습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Z세대가 이와 같은 주체적 학습에 열정적으로 매료될 학습 토대로서 이들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고통과 저항, 자본 중심주의, 능력주의, 잔혹한 사회경제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내적 상흔, 인간 소외, 존엄한 자기 인식과 인격적 자기 이해의 훼손 문제에 관한 학습자 치유와 회복의 총체적 작업을 주목한다.

본 논문은 청년 학습자들이 개인 경험에서 출발한 자기 서사 내러티브를 발견하고 성찰하는 자문화기술지 학습을 통하여 존엄하고 거룩한 존재로서 인격을 회복하고, 동시에 개인적, 사회문화적 맥락과 작용을 비판적으로 통찰하고 해석하며 문화적 자기 이해의 새로운 성취를 이루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2. 수업 설계

본 강좌는 전공에 상관없이 모든 학년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교양선택 교과목으로 설계되었다. 2025학년도 2학기 수강 신청 학습자는 40명으로 교과목 주제 학습과 자문화기술지 작성 학습의 두 트랙으로 진행되었다. 본 강좌의 자문화기술지 작성 과정은 3단계로 구조화되었다.

첫번째 단계는 자기 연결 학습 단계이다. 두번째 단계는 본격적으로 자문화기술지를 작성하는 단계로 컨셉노트 작성하기-컨셉노트 발전시키기-최종보고서(자문화기술지) 작성하기로 구성된다. 세번째 단계는 내적 세계와 연결하고 성찰하는 감수성과 역량으로 공동체의 사회적 이슈와 연결하여 탐구하는 단계이다.

자문화기술지 작업에 앞서 이루어지는 사전학습에서는 비폭력·피벗 원리를 학습하고 영화를 통해 영화 등장인물의 서사 내러티브를 다룬다. 자문화기술지 작업을 마친 후에는 자기 연결 감수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사회적 이슈로 확장하는 조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자문화기술지 작업과 조별 프로젝트 작업 사이에는 특강을 배치한다. 조별 프로젝트의 사회적 이슈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기 초부터 매 수업 시작을 한 주의 관심 있는 수업 관련 사회 이슈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

한다. 주차별 자문화기술지 진행 계획은 <표 1>과 같다.

표 1 주차별 자문화기술지 진행계획서

주차	내용
사전학습	비폭력.피벗 원리 학습하기/ 회복적 갈등 중재 대화모임
	영화 속 여성,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자문화기술지 진행	컨셉노트 작성하기 브레인 스토밍/ 여성주의 이론
	컨셉노트 작성하기
[나/우리 가족 여성 문화]	컨셉노트 작성하기 제출/ 여성주의 정책과 법률
	컨셉노트 작성하기 피드백/ 컨셉노트 발전시키기
특강	고려인동포여성 특강
자문화기술지 완성	최종보고서 초안/ 피드백
	최종보고서 제출/ 성,가족,노동
특강	중국동포여성 특강
조별 프로젝트 진행	컨셉노트 작성하기 브레인스토밍
	컨셉노트 작성하기 제출/ 해외지역 여성
	컨셉노트 작성하기 피드백/발전시키기/젠더와 리더십
	최종보고서 초안/피드백
	최종보고서 발표/피드백

2.3. 수업 방법

본 수업은 강의, 학습자 사전학습, 강의실 학습, 자문화기술지 작성 학습, 자문화기술지 감수성과 역량의 공동체 확장 학습으로 진행된다. 학습자 사전학습을 위해 관련 자료 영상, 학습 자료를 수업 전에 강의지원시스템에 미리 올려놓는다. 강의실 학습은 학습자에게 제공된 수업 자료와 개별 과제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개인별 사전학습 외에 모든 과정이 조별 모임을 수반하여 진행한다. 조별 모임은 회복적 갈등 중재 대화 모임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 여는 의식-여는 질문-주제 질문-실천 질문-닫는 의식으로 매뉴얼화 하여 진행한다. 각 조의 구성원은 5명 이내로 하며 조별 대화모임마다 진행자와 기록자를 정한다. 전체 조원이 진행자와 기록자를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학기 초에 조원 이름 순서를 미리 정한다. 조별 토의 과정은 강의지원시스템에 주차별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올리고 진행자가 주차 조별 활동 내용을 발표한다.

자문화기술지 작성 과정은 컨셉노트 작성하기-컨셉노트 발전시키기-최종보고서 작성하기 과정으로 진행되며 각 과정 사이에 강사 및 동료 피드백을 진행한다. 자문화기술지 작성하기 단계

에서 조별 프로젝트 브레인스토밍으로 연결할 때 매개 과정으로 전문가 초청 특강을 진행한다. 조별 프로젝트의 전체 진행은 자문화기술지 작성 과정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되 조원 개별 주제를 아우르는 전체 조 제목을 도출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개별 탐구 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이슈, 사건을 온라인에서 검색하여 소개하고 개별 주제와의 연결성을 조원들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각 조원의 개별 주제는 각자 진행하는 한편으로 전체 작업에 대하여 역할 분담을 하여 최종보고서 작업을 수행한다. 조별 프로젝트는 열린 게시판에 모두 탑재하여 전체 학습자가 다른 조의 주제, 진행 내용, 진행 방법 등을 볼 수 있도록 공유하고 상호 피드백한다. 조별 프로젝트 최종보고서 발표는 직접 발표 혹은 영상 발표 가운데 선택한다. 발표 결과에 대하여 전체 구성원이 상호 피드백 시간을 갖는다.

3. 자문화기술지 작성 과정

3.1. 사전학습

3.1.1. 비폭력·피벗원리 학습하기

본 강좌는 첫째주 오리엔테이션 수업에서 비폭력·피벗 공감대화 원리를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 진행은 여는 의식-여는 질문-주제 질문-실천 질문-닫는 의식 순서로 진행하였다. 여는 의식으로는 백자의 ‘은박꽃’을 함께 들었다. 아직 참가하고 싶은 주제 조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앉은 상태로 조를 구성하였다.

첫 수업이니만큼 여는 질문에 관한 나눔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 첫번째 여는 질문은 지금 나의 기분은 어떤가이다. 학습자들이 자신의 기분을 표현할 느낌말 단어를 떠올리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NVC센터의 느낌말 단어 카드를 함께 살펴보았다. 학습자들은 ‘비가 많이 와서 답답하다. 피곤하고 긴장이 풀린다. 반갑고 평온하다. 서먹하고 피곤하다. 새로운 교수님을 만나서 반갑다. 기쁘다. 무기력하다. 노곤하다. 답답하다’ 등 느낌말 카드에서 지금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는 단어를 찾아 올렸다.

두번째 여는 질문은 본 수업에 어떤 기대나 목표를 갖고 신청했는가이다. 학습자들은 ‘과목명이 특이해서, 여성사에 관심이 있어서, 해외 지역 여성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그냥 무슨 과목인지 궁금해서, 여성주의 이론을 공부해 보고 실상황에 대입해 보고 싶어서, 과목명이 흥미롭고 여러

3.1.2. 영화 나눔

2주차에서는 ‘서프로젝트, 스프와 이데올로기, 레미제라블, 헬프’ 등의 영화를 소개하였다. 학습자들이 영화에 등장하는 여성 주인공들의 개인 서사 내러티브와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2주차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학습자들이 함께 ‘서프로젝트’ 영화를 시청한 것이다.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하였지만, 영화 시청을 마무리하며 올린 소감 나눔에서 학습자들은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여성 집회와 관련된 영화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여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잘 몰랐는데 영화를 보니 어디선가 읽거나 봤던 내용이 떠올랐다, 뒷부분 내용이 궁금하다’ 등의 소감을 적어주었다.

‘서프로젝트’ 주인공의 서사 내러티브에 관한 나눔은 3주차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서프로젝트’ 영화 나눔에 이어서 학습자 개인 삶을 다룰 나의 첫 자문화기술지 주제에 관하여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3.2. 자문화기술지 작성하기

3.2.1. 자문화기술지 컨셉노트 작성하기

3주차 수업은 먼저 2주차 수업에서 함께 시청한 ‘서프로젝트’ 영화를 바탕으로 각 조에서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3주차부터는 조별 활동을 위한 안내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었다. 조별 활동 진행자는 모든 조원이 참여하여 자기 느낌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조별 활동 흐름을 이끌도록 안내하였다. 안내 매뉴얼은 <표 3>과 같다.

표 3 조별 활동 안내 매뉴얼

-
- 3주차 조별 활동 나눔 주제 안내 (기말 프로젝트 주제별로 자리 없음)
- 진행자. 기록자를 정함
 - 인사 나누기
 - 한 주 동안 관심이 가는 수업 관련 기사, 이슈 나누기
 - 서프로젝트 영화 나눔 .. 질문 3개 만들어 함께 이야기 나누기
 - 관심이 가는 법률 소개하기
 - 여성으로 존중받은, 존중한 경험이 있다면? / 존중받지 못한, 존중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면?
 - 내가 갖고 있는 여성 관련 통념은?
 - 중간고사 대체 과제 컨셉노트 작성하기 주제 브레인스토밍
 - 내가 겪은 우리 가족의 여성 문화, 나는 어떻게 길러졌을까?
 - 조별 활동 소감 나눔 ... 모든 조원이 개별적으로 나누고 진행자 소감 추가하기
-

주제 질문이 많아 조별로 나눔 주제 선택도 다양했다. 많은 조에서 여성으로 존중받은 경험, 존중한 경험, 여성 관련 통념에 관한 나눔을 선택하였다.

1조의 경우는 여성으로 존중받은, 존중한 경험에 관한 나눔에서 조별 활동이 끝나고 활동 소감으로 마무리하였다.

여성우대 주차칸을 통해 범죄노출로 부터 보호받은 경험이 있다/ MT에 참석했을 때 무거운 짐을 옮기는 건 남성이 해주는 배려를 받은 경험이 있다/ 여성은 꾸며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아침 일찍 일어나 화장을 억지로 할 때 존중 받지 못한다고 느꼈다

2조는 자신이 갖고 있는 여성/남성 관련 통념, 여성으로 존중받은 경험, 존중한 경험에 관하여 많은 시간을 들여 나눔을 진행하였다.

여자는 다리를 모으고 앉아야 한다/ 여자는 음식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남자는 긴 머리보단 짧은 머리를 가져야 한다/ 여자는 짧은 머리보단 긴 머리를 가져야 한다/ 여자는 명절 아침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 신체능력이 여성보단 남성이 더 좋을 것이다
문 잡아주기/ 음식 먼저 덜어주기/ 무거운 짐 들어주기/ 여성에게 우선 선택권 주기/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과 편안함 주기/ 밤길 데려다주기/ 여성이 도로 안쪽으로 걸을 수 있게 해주기

8조는 성인 학습자가 2명 포함되어 있고 다양한 가족 경험을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웠다. 성인 학습자의 경우는 어린 시절에 가부장적인 면이 많았고 남성 위주의 보수적 문화가 보편적이었다. 여성은 할머니가 되어서야 인정받는 문화였다. 다른 조원의 경우는 가족 안에 여성의 숫자가 더 많아 남자의 도움이 필요 없었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성별 상관없이 각자 하는 분위기였다. 가정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데로 할 수 있어서 성차별이나 성구분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집안일을 주로 맡으셨지만 아버지도 점차 참여하시며 성 역할의 변화를 보여주어 그 속에서 서로 돕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며 성장하였다. 1남 3녀의 막내로 태어나 모든 건 하나뿐인 귀한 아들 위주였고 존재감도 없이 자랐다는 아픈 나눔도 있었다. 또 다른 성인 학습자의 경우는 아들, 딸 차별도 겪었지만 직장내 성차별까지 겪었다는 나눔을 하였다. 아버지가 주방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남성이 육아하고 요리하는 프로그램을 접하고는 요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말에 레시피를 보고 요리를 해주시는 거에 흥미를 가지신 경우도 있었다.

여성으로 존중받은 경험, 존중받지 못한 경험, 여성 관련 통념 등에 관한 기억, 경험 등을 나누는 작업 등은 자연스럽게 학습자들에게 자신의 지난 기억, 경험의 세계로 시선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나눔에 대하여 학습자들은 자신이 한 이야기만 떠오른다면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어 좋았다는 소감을 말하기도 하였다. 여전히 성차별이

지속되는 현실에 참담함도 느끼고 또 서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다며 좋은 조원 라뵘(rapport)를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3주차에는 본격적으로 자문화기술지 작업을 시작하면서 컨셉노트 작성하기 예시 파일을 안내하였다. 예시 파일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개별 주제와 자기 내면과의 연결성이다. 컨셉노트 작성하기는 가족 내 여성 문화, 사건, 기억과 관련하여 기억나는 에피소드, 불편한 감정, 이해가 가지 않는 관행 등을 들여다보고 이것이 나의 내면 필요, 나에게 소중한 가치, 내가 살고 싶은 좋은 삶, 옳은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탐구하는 자문화기술지 작업의 설계 단계에 해당한다. 이 작업을 위해 학습자들은 주제 제목을 만들고 주제 선택의 동기, 관련된 기억이나 사건 등을 기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후 전체 일정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해 갈 것인지 전체 설계도 구상하였다.

학습자들은 컨셉노트 작성하기 브레인스토밍 활동을 조별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문화기술지 컨셉노트를 작성하였다. 강사는 제출한 컨셉노트에 강사의 느낌과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은 조별 활동 시간에 조원들과 함께 강사 피드백을 논의하고 자문화기술지 작성 과정의 애로 사항을 함께 나누며 상호 피드백 시간을 가졌다.

컨셉노트 작성하기 피드백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학습자 공감과 함께 학습자가 선정한 주제 제목을 개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제안이다. 학습자들은 컨셉노트 작성하기에서 나와 연결하여 주제를 찾는 방법을 낫설어하였다. 많은 학습자가 사회적 이슈에 초점을 둔 주제 제목을 제시하였다. 컨셉노트 작성하기 피드백은 사회적 이슈 탐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주제 제목을 나에게로 전환하는 제안, 나의 경험과 기억에 담긴 필요에 집중하며 더 깊은 주제 동기를 발굴하는 시선의 전환 작업에 비중을 두었다.

예를 들어, ‘아이를 돌볼 책임은 어머니에게만 있는 것인가’의 제목에 대하여 ‘우리 가족의 아이 돌봄 문화는?’ 혹은 ‘내가 경험한/내가 바라는 아이 돌봄 문화는?’ 제목으로, ‘여경보다 남경이 선호되는 이유’의 제목에 대해서 ‘여경에 대한 나의 인식, 우리 가족의 여성다움 인식에 관한 탐구’ 등으로, ‘주체적인 여성의 삶에 경제활동이 미치는 영향’과 같은 제목을 ‘여성 경제활동에 관한 나/ 우리 가족의 문화’ 등으로 학습자 내면의 필요, 가치와 연결하고 보다 구체적인 경험 세계, 기억과 사건을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피드백 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에게 안내한 컨셉노트 작성하기 예시 파일의 구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자문화기술지 컨셉노트 작성하기 예시

<p>제 목:</p> <p>제출일: 2025-09-29 소속: 학번: 이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한 주 기억나는 수업 관련 뉴스나 사건은? ↳ 어떤 내용? ↳이에 대한 나의 느낌이나 의견은? * 주제 찾기 .. 주제 동기 <p>주제 제목:</p> <p>주제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왜 이 주제에 관심이 갈까?/ 이 주제와 관련한 나의 기억이나 경험은?/ 이 기억/경험에 대한 나의 느낌, (충족된/ 충족되지 않은) 나의 욕구는?/ 이 주제에 연결되어 있는 나의 가치는?/ 이 주제는 나에게 어떻게 기여 할까? * 주제 목적 및 필요성 이 활동을 통해 성취하고 싶은 목적은? 이 활동은 왜 중요하고 필요할까?/ 이 활동으로 예상되는 개인적/학문적/사회적 기여는? * 탐구 내용1 탐구 이슈 자체에 관한 질문 형식으로 제시할 것 (구체적인 에피소드, 사건, 기억, 경험 자체에 관한 질문)... * 탐구 내용2 사회문화적 맥락 관련 질문하기 * 탐구 대상 및 지역 	<p>탐구 대상이나 탐구 지역은 누구? 어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구 방법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을 찾는 데 도움이 된 방법은? * 추진 일정 9월 22일 주제 제목 정하기/ 9월 29일 컨셉노트 제출하기/ 10월 7일 인터뷰, 자료 조사, 컨셉 발전 시키기/ 10월 14일 최종보고서 작성하기/ 피드백 받기/ 10월 27일 최종보고서 제출하기 * 본론 구성 (세부 장/절을 정한 다음,, 탐구 내용을 기술한다) 1장 제목: 2장 제목: * 도움을 받은 사람이나 참고 자료 자료 형태, 목록 구체적으로 적기 * 활동 관련 자료 - 기록지, 사진 등 * 활동 소감 보고서 - 작성 활동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배움 (배운 점이 있다면)~~/ 감사 (나에게, 동료/팀에게)~~/ 애도 (나에게, 동료/ 팀에게)~~/ 확장 (더 탐구하고 싶은 점)~/ * 나 칭찬하기. 선물주기 ~ 념 수고하셨습니다!
--	---

자기 전환적 제목 수정의 예시는 학습자들이 동일 주제를 어떻게 자기중심 서사를 핵심으로 다루는 제목으로 다시 쓸 수 있는지에 관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다. 학습자들은 이와 같은 자기 전환적 피드백 예시를 보면서 스스로 자기 서사 중심의 감각을 일깨우며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을 담아 주제 제목을 수정해 나갔다.

이와 같은 전환적 발상 경험은 학습자들이 본격적인 서사 탐구에 들어가기 전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내적으로 깊이 연결하며 자신의 내적 필요, 내적 결핍과 갈망의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자기 발견, 자기 몰입의 선순환적 연결이 컨셉노트 작성하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구체적인 사건 서사를 회상해 보면서 내가 다루어져 온 우리 가족 안의 관행, 가치, 인식, 태도에 대해 당시 나는 어떻게 느꼈는지, 동의 없이 강제된, 혹은 당위적으로 제시되고 내면화된 문화 관행과 양식에 대하여 지금 나는 어떻게 느끼는지, 지금 나에게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지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과연 학습자 자신이 전 존재로 원하는 나의 삶, '나'다운 삶의 양식은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 존재론적 질문을 스스로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다.

학습자 개인별 자문화기술지 주제 제목을 소개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자문화기술지 개인별 주제 제목

우리 가족의 여성을 대하는 방법	가족 안에서 여성의 돌봄 역할과 나의 어린 시절 경험
여성으로서 경험한 우리 가족의 일상과 문화	성폭력 예방
나, 우리 집안의 여성과 가족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	나/우리 여성투쟁과 현대사회의 연대
성폭력 근절을 바라는 나와 사회 사이	가족 내 남아선호 문화
필자 본인이 느낀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고찰	건강을 위한 운동, 왜 여성에게는 외모 관리로 의미가 바뀌는가?
여자 경찰을 약하다고 바라보는 시선	가족 의례 속 여성의 역할
우리 집 식탁을 지켜온 아빠의 역할	한국의 남녀평등
여성 참정권과 나의 민주주의 경험	어린 시절의 성차별적 경험과 나의 성장
양성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사회	여성의 경제활동과 직업 세계
가사는 엄마가?	가족 내 세대별 여성 인식의 변화
여성이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한 노력	대부분의 여성이 경험하는 안전 문제
어머니의 헌신에서 가족의 협력으로 우리 집안 여성문화	주체적인 여성의 삶에 경제활동이 미치는 영향
여성주의 남녀 평등에 관한 나의 통념 인식	나만 챙기지 말아 주세요
나 혹은 우리 가족의 성차별 관련 생활양식	여경보다 남경이 선호되는 이유
성폭력 범죄의 현황과 인식	아이를 돌보는 책임은 어머니에게만 있는 것인가?
가족 간의 호칭과 서열 문화	가족관계의 성역할
말하기의 용기 미투 운동 이후, 여성들은 어떻게 변했는가?	가족 내 남아선호 문화

3.2.2. 자문화기술지 컨셉노트 발전시키기

컨셉노트 발전시키기 과정에서 중요하게 진행하는 작업은 학습자 개인의 서사 내러티브에 초점을 맞춘 주제를 바탕으로 개인 서사 내러티브와 관련된 연구 자료 조사, 문헌 및 참여 관찰, 심층 인터뷰 등 개인사적 자료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컨셉노트 작업을 통해 구체화되어 가는 나의 서사 내러티브를 발굴하고 재구성하며 비어 있는, 불편한, 수용하기 어려운 나의 서사 내러티브의 지형을 의식의 차원으로 소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용하기 불편한, 혹은 저항감이 드는, 혹은 만족스러운 나의 문화적 구성 상태에 관하여 무엇이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문화적 구조와 제도, 권력이 작동하였는지 탐구하는 2차 탐구 과정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의 서사 내러티브 탐구를 2단계로 진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학습자 스스로 이제까지 인식하지 못하였던 문화적 구성체로서 자기 구성의 메타 구조에 눈을 뜨도록 안내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단계는 모두 2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개인 서사 내러티브의 발견과 재구성 단계가 진행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서사 내러티브의 문화적 구성에 영향을 미친 사회문화적 맥락, 구조, 메타 작용을 분석하는 단계가 진행된다.

수업에서는 서사 내러티브에 관한 메타 분석까지 안내하였다. 하지만 두 작업을 모두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 서사 내러티브의 재구성 단계에서 마무리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학습자 개인이 결정하였다. 학습자들은 발전시키기 작업을 통하여 본인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담긴 핵심 가치, 학습자 자신의 충족된, 혹은 충족되지 않은 필요와 갈망 등을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발전시키기 구조를 바탕으로 직접 서사 내러티브 자료 수집을 확장, 심화하였다. 나아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 서사의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최종보고서는 이렇게 학습자가 발견하고 이끌어낸 키워드, 이 작업을 통해 발견하고 분석하고 해석한 나의 새 세계, 심장에서부터 올라오는 이야기와 의미들을 차분히 재구성하고 기술해 가는 작업이다.

자문화기술지 컨셉노트 발전시키기에 소개한 주제 선정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가족이 여성을 대한 방법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작성을 구상한 학습자의 경우, 평소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나를 대할 때 배려하시고 존중하신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고, 여성이다 남성이다 고정 관념 없이 각자 잘하는 역할을 하는 편인데, 친할머니댁에서는 여성 가족 구성원이 요리하고 제사상 차리며 대부분의 것을 준비하는 현상에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이에 관해 협력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가족의 여성 대하는 방법에 관하여 적어 보고 싶었다고 기술하였다.

나 혹은 우리 가족의 성차별 관련 생활양식에 관해 적어 보겠다고 정한 학습자의 경우, 가족 성차별과 관련한 기억과 경험이 있었다. 성별 가사 노동 분배나 특정 성별에게만 허용하거나 권장되던 일, 관심사에 대한 미묘한 차별적 경험이 있었다. ‘남성 친척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반면 여성들은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 ‘자신에게 기대되던 여성스러운 행동 양식에 대한 압박감’ 등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에 학습자는 혼란스러웠고 부당함을 느꼈다. 평등하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았으며 특정 역할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싶은 자율성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 학습자는 자문화기술지 작성을 통해 자신의 성장 배경과 현재의 가치관 사이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성찰이 보다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길 기대했다.

가족 내 남아선호 문화에 관해 작성하고자 한 학습자의 경우, ‘자신이 첫째 딸로 태어나 겪은 가족 내 차별적 시선과 대우’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있었다. 이 경험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과 가족에 대한 인식에 깊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를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학습자는 주제 설명의 첫 문장을 자신이 태어났을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다른 집은 아들도 있는데 우리는 손자가 없네’라며 엄마에게 눈치를 주셨다는 문장으로 시작하였다. 둘째도 딸이고 셋째가 아들로 태어났는데 언니(학습자)를 낳고 엄마는 행복하지 않았다고 (동생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학습자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심하게 소심하여 예쁨을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했다. 존재 자체로

환영을 받고 싶었지만, 이 욕구는 충족되지 않았으며 대신 소외감과 서운함이 자리하였다. 지금도 할머니댁에 가도 인사도 잘 안하시고 자신들을 지나쳐 남동생에게 인사하셨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만나자마자 하시는 소리가 집안일부터 시키셨다.

컨셉노트 작성하기 작업을 보면, 학습자들은 이미 타자적 지식 정리나 과제 수행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전 존재가 우리나라의 글쓰기로 진입하고 있었다. 학습자들은 내면의 자기와 연결하는 활동을 통해 자기 이해에 눈을 뜨며 가족 내 성차별적 문화의 문제적 상황을 감지하고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아에 관한 더 깊이 이해와 일치를 추구하며 더 건강한 자기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강한 열망, 지향성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표 6 자문화기술지 컨셉노트 작성하기 사례

제목: 여성으로서 경험한 우리 가족의 일상과 문화	여성으로서 경험한 우리 가족의 일상과 문화
<p>주제 제목: 여성으로서 경험한 우리 가족의 일상과 문화</p>	
<p>주제 설명: 이 주제는 우리 가족 안에서 여성들이 맡는 역할과 그 문화를 탐구하는 것이다. 명절과 구순잔치 같은 가족 행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여성 노동과 세대별 차이를 중심으로 나의 경험과 생각을 성찰하며 우리 가족 여성문화가 형성되고 변화해온 맥락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p>	<p>나는 어릴 적부터 명절이면 반복되는 풍경을 보며 자라왔다. 집안의 여자들이 모여 음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하는 모습이었다. 친할머니는 새벽부터 우리엄마만 불렀고 외가집에서는 좀 달라지만 마찬가지로 엄마 이모들 외숙모들과 함께 권을 부치고 국을 끓였고 남자 친척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어린 나는 그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장면이 점점 의문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p>
<p>※ 탐구 내용1 우리 가족 안에서 여성들은 왜 명절이나 행사 때 반복적으로 일을 맡는가? 여성 스스로도 그 역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대별로 여성문화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성평등 의식이 확대되는 사회에서 앞으로 가족 내 여성문화는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p>	<p>내가 여성으로서 직접 그 역할을 요구받는 순간이 오면서부터 이 문제는 나의 고민이 되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여자라는 이유로 설거지나 간식부름을 맡는 일이 많았다. 그때마다 속으로는 조금씩 불만이 생겼지만 여자는 움직여야 한다거나 예의는 그렇게 지키는 것이라는 말을 들으며 참고 넘어가야 했다. 이런 반복적인 경험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번 과제를 보니 이런 경험이 나의 관심 주제가 되었다.</p>
<p>※ 탐구 내용2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여성 노동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사회의 전통적 성 역할이 가족 내 여성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세대 간 차이가 가족 내 여성문화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p>	<p>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두 가지 있다. 고등학교 때 커피를 태우려고 하셔서 물을 끓이다가 내가 왜 여자들만 해야 해요 하고 툭 내뱉은 적이 있다. 그때 이모는 원래부터 그렇게 해왔어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오면 오히려 불편해 라고 말했다. 당시 나는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말은 단순히 이모의 의견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세대적 문화를 반영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모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두번째 올해 초봄 외할아버지 구순잔치가 있었다. 나는 손가락이랑 손목 인대가 부어서 손을 쓰는 것이 많이 힘들었지만 다같이 카페에 갔을 때 우리 아빠 말고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 아빠랑 이모랑 함께 커피를 나르며 일을 했다. 외갓집에는 6남매가 있어서 원래 인원이 많은데 그날은 약 스무 명 정도 모였던 것 같다. 손이 너무 아팠지만 그날도 나는 여자라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일을 맡게 되었다.</p>
<p>※ 탐구 대상 및 지역 우리 가족의 여성문화로 할머니 어머니 이모와 나까지 포함하여 세대별 여성 역할과 경험 우리 집과 친척 집을 중심으로 한 한국 가정 내 가족 행사 및 일상</p>	<p>나는 이 수업을 듣기 전에도 평등과 주체성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여성우월주의는 아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역할을 강요받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여성도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엄마아빠의 말씀이 내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여성문화는 단순히 가족 내부의 규칙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떤 여성으로 살아가고 싶은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 우리아빠도 가부장적이고 여자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지만 참 답답했을 거 같지만 다행이도 그렇지 않다. 그래서 더 확실한 가치관이 형성된 거 같기도 하다.</p>
<p>※ 탐구 방법 가족 구성원과 대화와 관찰을 통해 여성들의 역할과 경험을 기록하고 분석하며 명절과 가족 행사에서 나타나는 실제 행동과 역할 분담을 사례로 삼아 세대별 차이와 사회문화적 맥락을 성찰한다.</p>	

학습자들은 자문화기술지 컨셉노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과 의식에 정서적으로 연결하며 마음의 움직임을 경험하였음을 이들이 적고 있는 활동 소감에서도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은 자문화기술지 작성 과정에서 엄마와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점을 고마워하였다. 어린 시절의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끼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자신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였던 어린 시절의 나 자신에 대해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당연히 여기던 인식, 시선을 자각하게 된 거, 세대를 이어 느리지만 조금씩 변화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는 인식까지도 보여주었다. 자문화기술지 컨셉노트 작성하기, 그리고 발전시키기 작업에서부터 학습자들의 자기 인식 감수성과 비판적 자기 이해 역량은 자라나고 있었다.

표 7 자문화기술지 컨셉노트 작성하기 활동 소감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 자신에게 그리고 엄마에게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고맙다. 어린 시절의 나에게,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그 마음을 안아주고 싶다.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고 글로 풀어낸 나, 정말 용기 있고 멋지다. * 어린 시절의 나에게 감사하다. 불합리한 성역할 규범 속에서도 끝내 의식적으로 거부할 힘을 내주었다. 당시 환경 속에서 스스로 지켜낸 인내심, 이제 성인이 되어 그 경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할 용기를 내 현재의 나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 낯선 주제를 끝까지 탐구하고 정리할 수 있던 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든다. * 나는 투쟁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행하는 불법촬영과 유포에 분노했다. 내가 잊고 있던 나의 투쟁에 대해 분명 존재하는 여성 차별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 감사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를 애도한다. 성별 때문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경험이나 기회를 박탈당했음에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상실감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나를 애도한다. * 직접 참여한 경험이 부족해 사례를 보다 생생하게 담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 여전히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 나의 경험과 가족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탐구를 진행한 나를 칭찬하고 싶다. 다양한 질문을 통해 가족 구성원과 주변인의 생각과 경험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생각한 점도 칭찬한다. * 명절에 항상 여자들은 일하고 청소하던 풍경은 단순한 기억을 넘어 하나의 문제의식으로 남았다. 할머니 세대가 그 자리를 당연하게 여겼다면 어머니 세대는 전통과 자립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고 나의 세대는 이제 그 문화를 바꾸려 고민한다. 우리 가족의 여성문화는 세대를 거치며 변해온 살아 있는 문화다.
---	---

3.2.3. 자문화기술지 최종보고서 작성하기

자문화기술지 최종보고서는 발전시키기 과정을 거치며 서사 내러티브 재구성 및 사회문화적 맥락에 관한 분석 자료를 체계화하고 본문의 하위 목차를 구성하여 작성한 글이다. 최종보고서 양식은 크게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첫째, 주제 도출하기, 둘째, 탐구 및 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기술하기, 셋째, 이 활동에 대한 학습자 자신의 소감적기 등이다. 학습자들에게 예시 파일로 안내한 자문화기술지 최종보고서 양식은 <표 8>과 같다.

학습자들은 컨셉노트 작성에서 최종보고서까지 거의 두 달의 시간 동안 작업하여 최종보고서를 완성하였다. 최종보고서 예시 파일을 안내했지만, 최종보고서 구성 및 형식은 자유롭게 작성하였다. 최종보고서는 한글 파일을 기본으로 하고 ppt 작성 여부는 선택으로 하였다. 모든 학습자가 한글 파일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표 8 자문화기술지 최종보고서 예시 파일

제목:
 제출일: 2025-10-27 소속: 학번: 이름:
 목차

1. 나의 문제의식, 주제 선정의 배경 등을 녹여 문제 제기하기
 - * 주제 제목, 주제 설명/ * 주제 목적 및 필요성 / * 관련 기존 연구, 이론, 논문 등 제시, 분석적으로 기술-내 글과 연결점 찾기/ * 탐구 방법, 탐구 과정 소개/ * 탐구 지역, 탐구 대상 소개
2. 본론 구성
 - (세부 장/절을 정한다면,, 탐구 내용을 장을 나누어 기술한다)
- 1장 제목:
- 2장 제목:
3. 탐구에서 밝힌 결과 등
4. 활동 소감
 - 배움 (배운 점, 새로 발견한 점이 있다면) / 감사 (나에게. 동료/관계들에게) / 애도 (나에게. 동료/관계들에게) / 확장 (더 탐구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기타 내가 포함하고 싶은 내용
- 참고문헌
- 기타 자료

일부 학습자는 최종보고서를 논문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상대적으로 본론 구성은 자유롭게 구성한 경우가 많았다. 많은 학습자가 개인 서사 내러티브 재구성에 집중하였다. 서사 내러티브에 영향을 미쳤다고 스스로 분석한 문화적 맥락을 본론 구성에 포함하여 글쓰기를 시도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전공과 연결하여 자기 서사를 풀어낸 글쓰기도 관찰되었다. 사회적 이슈 소개와 분석 중심의 글쓰기도 여전히 관찰되었다. 그러나 마음의 기억과 의미를 바탕으로 글을 쓰기 버거워하면서도 많은 학습자가 자문화기술지를 써낸 자신에 감동하고 뿌듯해하였다. 최종보고서 가운데 본론 하위 목차를 중심으로 사례를 소개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자문화기술지 최종보고서 목차 사례

<p><u>여성으로서 경험한 우리 가족의 일상과 문화</u> 문제의식 및 문제제기 주제설명 및 탐구방법 본론 및 탐구결과 나의 경험 및 성찰 활동 소감 및 향후 탐구 방향</p>	<p><u>우리의 전통과 여성의 자리</u> 문제인식과 주제 선정 배경 탐구 내용 정리 제사 속 여성의 자리/ 결혼식 속 성별 규범/ 장례식 속 여성의 역할 제한 탐구 결과와 해석 탐구 활동 소감 참고문헌</p>
<p><u>어머니의 헌신에서 가족의 협력으로 우리 집안의 여성 문화</u> 나의 문제의식 및 주제 선정 배경 본론 나의 가족 안에서 본 전통적 역할과 변화/ 나의 가족 경</p>	<p><u>‘누구의 엄마’가 아닌 내 이름 석 자로 사는 삶이 좋았다</u> 주제와 관련하여 주제: 주체적인 여성의 삶에 경제활동이 미치는 영향 198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어려웠던 사회적 배경 1980년대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p>

<p>형과 한국 사회 여성문화 변화의 연결 탐구에서 밝힌 결과 등 활동 소감</p>	<p>1980년대 사회생활의 경험적 실제 나의 성장 배경/ 나의 사회생활 당시의 실태/ 동료 직원 J씨의 성장과정과 사회생활 근무 환경/ 여성의 경제적 참여가 필요한 이유 활동 소감 참고 자료</p>
<p><u>‘집안의 기둥’이 된 딸 - 가족과 사회가 만들어낸 역할의 무게</u> 이 글을 시작하며 가족 속 부여된 ‘딸’의 역할과 그 무게 사회와 문화가 만들어 낸 구조적 배경 탐구 과정 및 결과 - 언어, 문화 분석 이 글을 마무리하며</p>	<p><u>나,우리 집안의 여성과 가족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u> 서론 본론 과거/ 집안의 여성 역할과 책임/세대별 여성의 위치와 역할 인식/여성의 사회 진출과 가족문화 변화/ 사회문화적 맥락의 집안 여성 역할 변화/ 국내외 여성 인식 비교와 미래 전망 결론</p>
<p><u>한 가정의 남녀 역할</u> 사랑의 규칙 속에서 자란 나의 가족 경험 가족 경험을 통해 본 성별과 사회문화적 맥락 마무리</p>	

학습자들의 자문화기술지 최종보고서는 도입부/서론에서 주제 제목 도출의 배경, 관련 경험과 사건, 탐구 목적과 탐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기대, 탐구 과정 등을 정리하였다. 본론 부분에서는 <표 9>의 본론 목차 사례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주제 탐구 과정에서 구체화된 개인 내러티브 서사, 개인 내러티브 서사에 연결된 문화적 맥락과 작동 방식 등에 관한 기술을 하위 목차로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마무리 부분에서는 자문화기술지 탐구 활동에 관한 소감 등을 기술하였다.

<표 9>의 최종보고서 목차 가운데 ‘나의 가족 경험과 한국 사회 여성문화 변화와의 연결, 사회와 문화가 만들어 낸 구조적 배경, 가족 경험을 통해 본 성별과 사회문화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의 집안 여성 역할 변화’ 등에는 개인 서사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맥락, 구조와 제도, 사회 담론과 이데올로기 등 메타 차원의 영향력, 상호작용, 지배와 통치의 역동성을 밝혀보고자 한 학습자들의 비판적 분석 작업이 담겨 있었다. 개인의 사건과 경험 중심의 서사 내러티브를 낯설게 보고 비판적으로 읽고자 하는 자문화기술지 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자기 삶을 구성해 온 사회구조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역량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다.

자문화기술지 최종보고서 가운데 몇 사례의 기술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의 명절 문화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여성 중심 주방 노동이 사회화된 성 역할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돌봄과 노동을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을 탐구하고 싶다’, ‘개인 차원에서 인식하던 여성 노동의 성격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당연하게 여기던 일들에 대하여 당연하지 않음, 감사함과 안타까움에 눈을 뜨게 되었다’ 등의 소감을 적고 있다.

또한, ‘스스로에 대해 진솔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나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고정관념 등 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여성 관련 이슈를 많이 알게 되었고 나의 생각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나에 대해 돌아보고 알게 되었다’, ‘내가 느끼던 감정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집을 문화적으로 알게 되었고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주위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슬퍼하거나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노력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 인식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레포트를 잘 작성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한 거 같다’, ‘자료 조사를 하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의식하지 못하고 살던 부분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나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였다’, ‘나는 나보다 남에 대해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내 인생 목표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등 자신에 관한 깊은 이해를 성취한 소감, 나아가 자신과 여성 일반에 관한 깊은 인식에 눈을 뜨게 된 소감, 좀 더 자신에 당당하고 자유로운 삶을 희망하게 된 포부 등도 적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학습자 대부분은 자문화기술지 작성을 통하여 자아와 마음으로 만나고 연결하고 이해하는 내적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문화적 구성체로서 인지하지 못한 채 생성된 내 삶의 면모를 인지하기 시작했다고 판단된다. 이 과정을 거치며 학습자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생 목표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깨닫게 되었으며 자신을 문화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판단된다.

학습자들은 근본적으로 나를 포함하여 자신의 주변 여성들이 인권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중요한 성취를 이루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연결성은 강좌 교과목의 실제적 내용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깊이 인식하는 단계로 나아가갈 수 있게 하였으며 자신이 여성에 대해 어떤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자문화기술지 최종보고서 활동 소감 가운데 일부 사례를 소개하면 <표 11>과 같다.

표 10 자문화기술지 최종보고서 활동 소감 사례

이번 탐구를 통해 가족의 명절 문화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우리 가족의 명절이 크게 가부장적이라고 느끼지 못했지만, 준비 과정과 역할 분담을 자세히 살펴보니 일상 속에 많은 가부장적 관습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릴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여성 중심의 주방 노동이 실제로는 사회화된 성 역할의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명절마다 쉴 틈 없이 일해온 어머니와 할머니의 수고를 떠올리며 미안함과 감사함이 함께 느껴졌다. 동시에 이러한 관습이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느꼈다. 어쩌면 ‘전통’이라는 말이 이러한 규범을 은폐하는 말이 아닐까 싶었다. 그러나 문제를 인식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변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앞으로는 명절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돌봄과 노동을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을 탐구하고, 다른 가족이나 세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알아보고 싶다. 이번 활동은 익숙한 가족 풍경 속에 숨겨진 불평등을 새롭게 생각하게 해 준,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앞으로 이 과정을 통해 다른 학생들도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하는 가족 문화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옛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새삼 지금 이 삶이 감사하다. 용기 있게 맞서고 미움 받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부당함에 목소리를 낸 나에게 칭찬하고, 힘든 시간 함께 잘 견뎌준 J에게 감사한다. 힘든 시기를 잘 견디지 못하고 출발은 같았으나 삶의 여정이 달랐던 다른 동료들에게 부디 그들의 삶의 여정도 다른 방향으로 행복한 삶이기를 바란다. 우리 젊은 여성들은 어떤 종류로도 차별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일을 하며, 자신의 능력을 맘껏 발휘하는 당당한 여성으로 주체적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나는 이번 활동을 통해 여성의 사회 진출, 교육 기회 확대, 미디어와 대중문화의 영향 등 다양한 요인이 가족 내 여성의 역할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배웠다. 또한, 세대 간 인식 차이와 갈등이 때로는 새로운 소통과 이해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각자가 변화에 적응하고 서로를 존중하려는 노력을 해왔다는 점이 감사하다. 특히, 어머니와 할머니가 겪었던 어려움과 희생이 오늘날 가족문화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그러나 여전히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변화의 속도가 세대나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이나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 추가적으로 일반적인 가족형태와는 조금 다른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의 여성 역할 변화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보고 싶다.

이번 탐구를 하면서 내가 무심히 지나쳤던 가족 의례 속 장면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예전에는 그저 원래 그런 거니까 하고 받아들였던 것들이 사실은 성별에 따라 역할을 고정하는 문화였다는 걸 알게 되니 새삼스럽고도 씁쓸했다. 제사 준비에서 여성은 늘 뒷일을 맡고, 결혼식에서는 혼주의 한복 색까지 성별로 정해져 있었으며, 장례식에서는 아들만이 상주가 되는 모습까지 모두 같은 맥락으로 연결된다는 걸 알았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단순히 억울함을 넘어서, 왜 이런 전통이 유지되고 있는지 질문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가족 어른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래야 하는 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앞으로 내가 또다시 이런 의례를 겪게 되더라도 이제는 그냥 당연하다고 넘기지 않고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 같다. 작은 질문 하나라도 던지는 것이 변화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탐구는 결국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였고, 우리 가족의 여성문화 속에 숨어 있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 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번 탐구를 통해 가사노동이라는 단어를 다시 보게 되었다. 예전에는 집안일이 단순히 부지런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계획과 시간, 감정까지 필요한 노동이라는 것을 알았다... 탐구 과정에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머니가 특별히 힘들다고 표현한 적은 없었지만 가끔은 쉬고 싶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 이 말을 들으면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 한편으로는 내가 한 번도 어머니의 부담을 정확히 바라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조금 아쉽고 미안했다. 어릴 때는 단순히 엄마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힘들어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 만약 조금 더 일찍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어머니의 일을 도와주거나 시간을 나눠줄 수도 있었을 거라 느꼈다... 앞으로는 우리 가족 안 뿐 아니라 다른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더 알아보고 싶다. 나 또한 앞으로 가족과의 삶 속에서 역할을 나누고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4. 자문화기술지 확장하기

자문화기술지 작업은 일차적으로 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입게 된 손상, 훼손, 상흔을 의식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직면하는 작업을 통해 내적 치유와 해방감을 경험하고 주체적 자기 이해, 자기 인식의 힘을 일깨우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기 연결의 기쁨과 충만함이 일깨우는 인격적 자기 이해의 감수성과 역량을 확장하여 공동체의 사회적 이슈와 연결하고 탐구하고자 한다. 본 강좌는 자문화기술지 관점과 감수성을 확장하여 적용해보는 활동으로 조별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개인 차원의 자문화기술지 작업과 공동체의 사회적 이슈 다루기 조별 프로젝트를 매개할 단계로서 재외동포 여성에 관한 2회의 특강을 진행하였다.

4.1. 특강

본 강좌에서 소개한 특강은 고려인동포(여성) 특강과 중국동포(여성 및 청소년) 특강이었다. 영화를 통하여 자기 서사 내러티브를 발견하고 재구성하는 경험을 시도했듯이 동포여성 특강을 통하여 타자의 구체적인 삶을 만나보는 경험의 시간을 갖고자 하였다. 학습자들은 재외동포 여성의 이주 생애와 이주지 사회 정착 과정에서 겪는 여러 상황, 낮은 이문화 역량으로 인하여 겪는 불이익, 인권 침해, 생계의 직접적 어려움 등을 전문 강사의 생생한 강의 내용을 통해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었다. 특강 역시 사전학습 자료는 시작 전에 강의지원시스템에서 미리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다. 특강 중에 강사가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강 참가 후 조별로 강사가 미리 제공한 생각해보기 질문,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제시한 질문 가운데 선정하여 토의, 토론을 진행하고 발표 시간을 가졌다. 특강 강사는 마지막에 학습자의 조별 활동 결과에 대하여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다.

4.2. 조별 프로젝트

조별 프로젝트는 이미 학기 초부터 자신이 탐구하고자 하는 조별 프로젝트 개인 주제에 관하여 긴 고민의 시간이 있었다. 자문화기술지 작업의 진행 과정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 학습자 개인의 필요와 가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그동안 꾸준히 관심을 갖고 연결해 온 사회적 이슈를 정리하고 자신이 탐구할 사회적 이슈를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조별 프로젝트 역시 컨셉노트 작성하기, 발전시키기, 중간발표, 최종보고서 등의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학기 조별 프로젝트 활동에서는 이미 학습자들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고 있는 AI동반 학습을 허용하였다. 학기 초에 설정한 개인별 탐구 주제에 담긴 개인 경험, 관심을 바탕으로 AI 검색을 결합하여 탐구 주제를 구체화하고 명료화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자료 조사 단계를 넘어 직접 자료 생성 단계에서는 주체적 참여를 권장하고 동료 학습자들과 교차적 피드백을 수행하도록 하여 AI 기반 자료에 관한 교차 검증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조별 프로젝트 주제 제목은 다음과 같다.

표 11 조별 프로젝트 주제 제목

여성 범죄	성차별적 직종의 사회구조적 문제와 해결방안
성폭력, 성차별에 대한 모든 것	기술 진보의 젠더 변화: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 노동, 안전의 변화
여성 정치세력화와 여성운동, 여성교육	현대사회의 성평등정책 실태와 개선정책 제안
해외 여성	현대사회의 미규범은 산업, 광고, SNS를 통해 어떻게 재생산되며, 그 결과 여성의 소비문화와 자아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조별 프로젝트는 위에서 제시한 조별 프로젝트 주제 제목 속에서 전체 조원 각자가 자신만의 개별 주제를 선정하여 탐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별 프로젝트는 전체 3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첫번째 영역은 자문화기술지 작성 과정에서 이미 다루어 보았던 주제 관련 자기 탐색 부분이다. 바로 주제 선정의 동기, 개인별 경험, 주제 탐구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등에 관한 깊은 탐구 작업을 담는 것이다. 두 번째 영역은 이렇게 설정한 개인 주제를 어떻게 조사하고 자료를 발굴하고 생산한 자료를 분석하여 결론과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세 번째 영역은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개인적으로 그리고 나의 조 안에서 어떤 발견과 변화가 있었는지 학습 활동 전반에 관한 소감과 의견을 정리하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작업 흐름에서 AI 자료를 동반할 수 있는 부분은 첫번째 부분과 두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작업은 학습자 개인의 내면 서사에 관한 문화적 이해를 기반으로 하면서 유사 사례와 대비 사례를 폭넓게 조사하고 비교하는 작업 과정을 AI 동반 작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이 작업의 해석과 의미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세번째 작업은 다시금 학습자 개인의 내적 작업 비중이 커지고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 탐구 과정에서 학습자 개인 및 조 단위에서 활용하고 참고한 AI동반 학습 내용과 과정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기록하도록 하였다.

본 학습의 조별 프로젝트 진행 방식은 대부분의 학습자에게 처음 경험하는 흥미로우면서도 막막한 학습 방법이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본 학습에서는 자문화기술지와 조별 프로젝트 흐름을 같은 양식으로 구성하였다. 자문화기술지 작업이 조별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학습자들은 ‘조별 프로젝트 활동의 위밍업 느낌으로 도움이 되었다, 여성 차별(조별 프로젝트 주제)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국내 사례를 다루었던 자문화기술지에서 해외 사례를 다루는 조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성범죄가 전세계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 조원들의 생각과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볼 수 있었다,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미리 연습처럼 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거 같다, 도움을 주었다, 보고서를 처음에 쓸 때는 어떻게 써야 할지 많이 헤맸는데, 조별 프로젝트 때는 두번째라서 덜 헤맸다, 어떤 방향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토대를 잡을 수 있었다, 조별 프로젝트에서 여성들이 어떤 차별을 당하고 있는지 의견을 공유할 때 나를 예시로 들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 의견을 잘 모을 수 있었다, 내가 어떤 것을 탐구하고 싶은가를 알게 되었다, 주제를 선정하는데 약간 도움이 되었다’ 등의 의견을 올려주었다.

표 12 조별 프로젝트 최종보고서 활동 소감

-
- * 컨셉노트를 작성하면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라는 주제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단순히 법 문제에 그치지 않는 사회 전반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 자료를 조사하면서 피해자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와 사회적 시선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서 상당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증거를 가져오라는 등 몰상식한 요구가 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 * 조사해야 할 자료가 많을 거 같아 걱정되는 마음이 컸다. 하지만 전부터 탐구해보고 싶었던 주제이기 때문에 흥미를 갖고 탐구하여 작성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아이들의 사회화와 학습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보존되어야 할 공간에서 아이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안겨주는 어른들의 옳지 않은 행동이 많이 발생하였고 아직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들 또한 가슴 아파할 것에 대해서 나 또한 마음이 아프다.
 - * 이번 수업 들으면서 성폭력과 성차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면서 피해자의 단순한 개인적 피해가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누적시키는 사회적 연쇄 효과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 이번 조사를 통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전 세계적으로 성범죄 발생률이 높은 국가라는 점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웨덴, 미국에서는 성폭력에 관한 어떠한 정책이 있는지 알게 되었다. 또한,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 * 구조적 성폭력은 피해자가 저항하기 힘든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한국에는 구조적 성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을 위한 시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것들이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 * 성소수자 및 트랜스젠더 같은 특정 성별에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해외 국가들에서는 소외되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인 반면 한국은 아직 남성들의 의무적 병역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어 앞에서 조사한 변희수 하사의 복무 판정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지만 개인의 인권을 침해 한다는 점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례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조사를 하며 해외 국가들과 한국 여성 군인들의 대우와 제도적 복지는 사회적인 인식과 문화 때문에 예외적으로 취급되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많아 새롭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군인 뿐만 아니라 남성 군인들도 군 내에서 (성)폭력과 대우를 낮게 받고 극단적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 현대사회와 여성이란 수업을 들으며 조원들과 여성인권에 대하여 논할 때 예전의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인권이 많이 무시되었다는 것과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아직 직업이란 분야에서는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안타까웠으며, 이 모든 것이 여성으로써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가난한 나라들은 아동인권은 아예 무시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도 들었습니다. 이수업을 통하여 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게 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 특수 및 재활 분야와 관련된 언어치료학과에 재학 중이고 평소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에, 이번 과제를 작성하면서 생각보다 다루고 싶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여성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주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전공과도 연결되는 부분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1. 프로젝트 진행 중 어려웠던 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린 이유도 몇 가지 있었다. 우선, 주제가 여러 층위로 얽혀 있어서 처음에는 분석 범위가 자꾸 넓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산업·광고·소비문화·SNS·젠더 규범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 보니, 어느 부분까지 다뤄야 할지 경계가 모호했다. 또 하나 어려운 점은 서로 다른 조원들의 일정이었다. 조원들의 바쁜 스케줄이 달라 직접 만나기 어려워 구글 문서와 단체 채팅으로 대부분 협업을 진행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문체를 하나로 맞추는 데 꽤 시간이 들었다. SNS 사례 또한 난관이었다. 자료의 양은 엄청 많고 믿을 수 없는 정보도 섞여 있어서, 어떤 사례를 선택해야 하는지 선별 과정이 꽤 까다로웠다.
 2. 협업 과정에서 잘된 점 그림에도 불구하고 협업 자체는 굉장히 순조로운 편이었다. 조원 모두가 맡은 부분을 성실하게 준비해 왔고, 역할 분담이 명확해서 전체 흐름을 맞추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회의를 할 때도 분위기가 좋아서 서로 부담 없이 의견을 나눌 수 있었고, 문장 표현이나 분석의 깊이, 시각 자료의 적절성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특히 조장이 일정 조율과 문서 구조 정리 같은 실무적인 부분을 잘 챙겨준 덕분에 작업이 훨씬 수월했고, 최종적으로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

3. 보고서 작성 전·후 변화 컨셉노트 단계에서는 각자가 맡은 주제의 기본 개념과 배경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파트 간 연결이 아직은 조금 느슨한 상태였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론적 틀을 다시 세우고, 실제 사례와 표·그래프, 구조도 등을 함께 넣으면서 분석의 깊이가 훨씬 강화되었다. 특히 초안만 봤을 때는 내용이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느낌이 있었지만, 최종본에서는 산업 → 광고 → 소비문화 → SNS → 젠더 규범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가 잡히면서 전체 흐름이 명확하게 정돈되었다.
4. 향후 과제 및 느낀 점 이번 프로젝트는 자료 중심 분석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설문조사나 인터뷰처럼 직접적인 경험을 들을 수 있는 1차 자료가 추가된다면 훨씬 더 생생한 연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미 규범이 세대, 계층, 사용하는 플랫폼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도 비교해 보면 의미 있는 확장 연구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SNS 알고리즘이 실제로 여성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5. 전체 프로젝트 종합 평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조원들은 현대 사회의 미 규범이 단순히 개인의 취향이나 선택이 아니라 여러 산업적·문화적·디지털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반복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각자 바라보던 문제의식이 조별 협업을 통해 하나의 큰 구조로 묶이면서, 관점을 확장하고 내용을 통합하는 경험을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서로의 분석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과정 자체가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현대 여성의 신체 이미지와 자아 인식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값진 경험이 되었다는 점에서 조원 모두에게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다.

자문화기술지 작업이 조별 프로젝트 진행에 가시적인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는 조와 상대적으로 낮은 연결성을 보이는 조가 동시에 관찰되었다. 전체 9개 조 가운데 3개 조에서 조원간 라포르(rapport) 및 탐구 결과의 질에서 다른 조에 비하여 낮은 성취도가 관찰되었다. 조별 프로젝트를 학습자 개인의 의미 세계와 연결하여 깊이 탐구하는 태도와 방식이 아직까지 낮은 상태인 학습자도 상당수 있었다. 자문화기술지 작업을 충실히 수행한 조원이 많은 조의 조별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탐구하는 현상을 해석하고 의미화하는 작업이 뛰어났다.

학습자 스스로 자문화기술지 작업이 조별 프로젝트에 일정 정도 도움을 주었다는 자체 평가를 적기도 하였다. 깊은 자기 서사 이해 경험, 그리고 문화적 맥락과 구조적 차원의 상호 작용을 분석해 본 경험을 통해 학습자들은 사회적 이슈와 마음과 내면으로 연결하고 교감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일부 학습자에게서 전 지구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로서 상호 관계하고 있는 공동체 감수성과 역량의 면모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AI 정보와 자료가 넘쳐나고 있는 학습 생태계에서 자문화기술지 작업 경험은 학습자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고 이루며 향유하고 싶은 삶을 발견하고 성찰하며 실천하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자문화기술지 작업의 자기 연결성, 인격적 주체로서 자기 이해 역량을 조별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 긴밀히 연결하는 작업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자문화기술지 작업의 성과를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이슈로 온전히 연결하고 확장할 것인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된다.

5. 결론

본 논문은 유교문화적 전통이 깊이 스며 있는 지역 사회에서 태어나 성장한 D 대학 학습자들이 가족의 여성 문화 경험에 관한 자기 서사 내러티브를 탐구하고 자기 서사 내러티브의 생성과 지속에 영향을 미친 문화적 맥락에 관한 분석 작업을 통하여 문화적 구성체로서 깊은 자기 이해를 성취하는 과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자문화기술지 작업은 한편으로 이들의 성장 과정에 긴밀히 작동해 온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시스템의 비인격적이며 도구적인 세계관과 작동 방식에서 비롯된 인격적 존재성의 손상, 훼손, 폐기에서 발생한 내적 상흔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작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전 지구적 사회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미래 시대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 혁명이 학습자들에게 가하는 성장 압력을 어떻게 Z세대 학습자의 특성에 기반하여 학습 성과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대안적 제시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을 타개할 학습법으로서 자문화기술지 학습은 3단계로 진행되었다. 본 논문을 통해 탐구한 자문화기술지 작업의 성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문화기술지 학습 과정은 사전학습, 자문화기술지 작성 학습, 자문화기술지 확장 학습으로 진행되었다. 사전학습으로는 학습자들이 인격적 자기 연결과 자기 이해의 첫 출발로 비폭력·피벗 공감대화와 회복적 갈등 중재 활동을 학습하도록 안내하였다. 많은 학습자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느낌, 몸의 변화에 집중하고 연결하며 상흔의 회복과 충만한 행복을 경험하였다. 나아가 몸과 마음의 현재와 변화 상태에 담긴 자신의 필요와 추구하는 가치를 찾아보는 경험을 하였다. 자문화기술지 작업은 이와 같은 자기 연결의 사전학습을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자문화기술지 작업은 이제까지 자기 자신을 연구 대상으로 다루어 본 경험이 없는 학습자들에게 신선하면서도 막막한 작업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회복적 대화모임 형식으로 진행되는 조별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동료 조원들과 라뵘(rapport)을 형성하며 각자의 어려움을 나누고 위로하는 장을 만들었다. 학습자들은 주제 탐구를 돕는 예시 사례를 함께 검토하고 강사와 동료 학습자 상호 간의 피드백을 논의하며 점차 자신이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를 명료화하고 주제 탐구 활동으로 나아갔다.

자문화기술지 초기 작업 과정에서는 여전히 자기 연결과 자기 이해의 방향보다 사회적 이슈, 사회적 시선과 문제의식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다수 나타났다. 강사의 피드백과 동료 간 논의 과정은 학습자의 자기 서사 내러티브를 자문화기술지 작업의 중심 주제로 다루도록 전환하는 데에 도

움이 되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다루고자 하는 주제 이슈가 학습자 개인의 역사와 내면에서 올라오는 구체적인 필요, 가치, 지향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자문화기술지 작업은 학습자들에게 자신을 억압해 온 혹은 당연하게 간주해 온 가족 안의 여성 관련 문화 관행의 부조리함을 내면으로부터 일깨우는 데 기여하였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온 사회문화적 맥락에 눈을 뜨게 되었고 나아가 실제 이슈에 관한 적극적이고 친취적인 탐구 활동을 시작하였다. 많은 학습자가 자문화기술지 작업을 통해 깊은 자기 이해와 연결로 나아갔으며 생동하는 주체적 삶의 새로운 위로를 누리며 회복해 나갔다. 그리고 자기 회복 과정에서 개화하기 시작한 타자 이해의 관점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사회적 이슈를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특강 학습은 자문화기술지 작업의 또 다른 목적 가운데 하나인 공동체의 사회적 이슈로 확장하는 작업의 매개 단계로서 동포여성 특강으로 진행하였다. 학습자들은 동포 여성의 생애 서사, 이들이 살아온 역사적 배경과 과정 등에 관한 사례를 학습하며 구체적인 개인 서사 내러티브가 어떻게 공동체의 사회적 차원과 연계되어 있는지를 인지할 수 있었다.

조별 프로젝트는 개인 주체에 관한 깊은 이해 학습 관점과 역량을 가지고 공동체의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자 한 학습이었다. 유사한 주제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같은 조를 구성한 동료 학습자들은 학기 초부터 함께 다양한 학습 활동과 자문화기술지 작업 과정을 통하여 정서적 공감대를 생성하였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생성한 상호 연결감과 친화감은 조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조별 프로젝트 탐구 활동을 끝까지 함께 수행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 자원으로 작용하였다.

학습자들은 사회적 이슈로 확장한 조별 프로젝트 작업 과정에서 자문화기술지 작업이 일정 정도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자문화기술지 작업에서 마음으로 연결하기 경험과 자기 이해 학습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조원이 많은 경우, 조별 프로젝트 최종보고서에서 내면 세계를 담아내는 영역, 주제 탐구 과정과 주제 다루는 방식, 활동 소감 나눔 등에서 소략하게 작성되거나 생략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대부분의 최종보고서에서 자료 기술과 분석 내용을 기술한 영역에서 참고하거나 활용한 AI 동반 학습 활동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 AI 동반 학습을 바탕으로 창의적이며 융합적으로 자료를 해석하고 의미화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학습 활동에 관하여 명료하게 구분하여 기술하지 않았다.

여전히 문화적 자기 이해의 장으로서 자문화기술지를 수행하는 경험에 어려움을 겪거나 관심을 몰입하기 어려운 학습자에 관하여 심층 탐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자문화기술지에서 함양한 감수성과 역량을 공동체의 사회적 이슈와 연결하는 학습 활동에 관하여도 엄밀하고 체계적인 연구

설계와 학습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자문화기술지 작업을 통하여 깊은 자기 이해의 관점과 역량을 함양하기 시작한 학습자들이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주체적이며 창의적인 질문과 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21세기 변혁적 사회 전환기의 시급한 이슈들을 어떻게 다루며 미래 인재로서 성장해 나가는지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대혁 (1999). 自己認識과 自己尊重의 儒家的 意味 : 孟子的 論議를 중심으로. **대학생활연구**, 11, 133-169.
- 교육부 (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141&lev=0&statusYN=W&s=moe&m=0404&opType=N&boardSeq=93458>
- 김성천 (2025). 학습공동체 운영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융합교육연구**, 11(3), 147-183. DOI : 10.69742/cer.2025.11.3.147
- 김세희 (2018). 자기 배려로서의 자기 인식과 파레시아: 미셸 푸코의 해석을 중심으로. **교육철학연구**, 40(1), 69-89. DOI : 10.15754/jkpe.2018.40.1.003
- 김수안, 김명찬 (2021). 국내 상담학 분야의 자문화기술지 연구동향. **질적탐구**, 7(4), 1-33. DOI : 10.30940/JQI.2021.7.4.1
- 김연숙, 전미경 (2025). 교양수업 '문학읽기'에서의 교수자 성찰과 수업 경험의 재구성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열린교육연구**, 33(6), 39-65. DOI : 10.18230/tjye.2025.33.6.39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08). 핵심역량 정의 및 선정 프로젝트(DeSeCo Project) 요약: OECD 보고서.
- 박순용, 장희원, 조민아 (2010). 자문화기술지: 방법론적 특징을 통해 본 교육인류학적 가치와 탐색. **교육인류학연구**, 13(2), 55-79. DOI : 10.17318/jae.2010.13.2.003
- 성해준 (2023). 동양사상에 함의된 修身의 의미와 실천 방안. **퇴계학논총**, 42, 133-164. DOI : 10.31781/toegye.2023..42.005
- 손현주, 강정인 (2019). 한국인의 가치관과 미래 선호가치. **지역사회연구**, 27(2), 179-205. DOI : 10.22921/jrs.2019.27.2.009
- 신난희, 유득규, 박난희 (2024). 깊은 자기이해에서 세계 알기를 시작하다 - D대학의 '세계시민과 회복적 평화' 교양 수업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8(1), 319-331. DOI : 10.46392/kjge.2024.18.1.319
- 신동형 (2021). **변화 너머: 2040 디지털 세상을 주도할 기술 전쟁의 시작**. 메디치미디어.
- 연장흠 (2025). **MZ세대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생태체계이론(Eco-System Theory)의 적용**. 국립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가영, 신주량 (2022). MZ 세대의 디지털 리터러시 유형 및 특성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7), 439-453. DOI : 10.22251/jlcci.2022.22.17.439
- 윤정진, 김경은, 윤미승, 장재진 (2021). 대학생 미래역량 신장을 위한 창의인성 융복합교육에 관

- 한 기초연구. **교양교육연구**, 15(3), 11-28. DOI : 10.46392/kjge.2021.15.3.11
- 이동성 (2006).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컨설팅 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초등교육연구**, 30(2), 657-674.
- 이동성 (2012). **질적 연구와 자문화기술지**. 아카데미프레스.
- 이동성 (2016). 국내 자문화기술지의 연구동향 분석. **초등교육연구**, 27(2), 85-105.
- 이상은 (2019). OECD Education 2030에 나타난 역량교육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29(4), 123-154. DOI : 10.20306/kces.2019.29.4.123
- 이인수, 유지호 (2023). MZ 세대 학습자를 위한 메타버스 활용 영어과 교육과정의 적용 가능성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7), 425-444. DOI : 10.22251/jlcci.2023.23.17.425
- 이지연, 홍재명 (2024). 특수교육 분야의 자문화기술지 국내 연구 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24), 723-737. DOI : 10.22251/jlcci.2024.24.24.723
- 정선희 (2025). 자문화기술지 기반 수업 ‘주목하기’의 교수학습 개선 효과: 체육 수업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융합연구**, 6(1), 175-195. DOI : 10.47415/IRAC.6.1.11
- 최숙영 (2024). 생성형 AI 시대의 미래 인재를 위한 핵심역량 프레임워크와 교육 방안.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7(9), 23-33. DOI : 10.32431/kace.2024.27.9.003
- 하정미, 좌문경 (2016). 사회복지연구에서의 자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의 가치와 적용 - 공동자문화기술지를 활용하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0(2), 41-75. DOI : 10.22867/kaqsw.2016.10.2.41
- 홍지희(2023). OECD Education 2030역량 기반 교육의 한계와 가능성: 존재론적 자유교육 관점에서의 탐색. **교육철학연구**, 45(1), 125-147.
- Hayano, D. M. (1979). Auto-ethnography: Paradigms, problems, and prospect. *Human Organization* 38(1), 99-104.
- Hayano, D. M. (1982). *Pokers faces: The life and work of professional card player*. University of California.
- Heider (1975). What do people do? Dani auto-ethnography. *Journal of Anthropological Research*, 31(1), 3-17. DOI : 10.1086/jar.31.1.3629505
- Marope, M., Griffin, P., & Gallagher, C. (2017). *Future competences and the future of curriculum: A global reference for curricula transformation*.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IBE), UNESCO.
- OECD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https://one.oecd.org/document/EDU/EDPC/ECEC/RD\(2010\)26/en/pdf](https://one.oecd.org/document/EDU/EDPC/ECEC/RD(2010)26/en/pdf)

- OECD (2018).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Position paper]. [https://www.oecd.org/education/2030/E2030%20Position%20Paper%20\(05.04.2018\).pdf](https://www.oecd.org/education/2030/E2030%20Position%20Paper%20(05.04.2018).pdf)
- Reed-Danahay, D. (1997). *Auto/Ethnography: Rewriting the self and the social*. Berg.
- Russell, C. (1999). *Autoethnography: Journeys of the self*. In *Experimental ethnography: The work of film in the age of video* (pp. 275–314). Duke University Press.
- Sala, A., Punie, Y., Garkov, V., & Cabrera, M. (2020). *LifeComp: The european framework for personal, social and learning to learn key competence* (Report No. JRC120911).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DOI : 10.2760/302967
- World Economic Forum. (2018). *The future of jobs report 2018*. World Economy Forum. https://www3.weforum.org/docs/WEF_Future_of_Jobs_2018.pdf
- World Economic Forum. (2020). *The future of jobs report 2020*. https://www3.weforum.org/docs/WEF_Future_of_Jobs_2020.pdf

A Case Study of Creative Convergence Education for Cultural Self-Understanding

Analysis of Autoethnographies by Learners in the “Modern Society and Women” Course at D University

NANHEE SHIN Assistant Professor,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Daegu Catholic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process by which students in the “Modern Society and Women” course at D University reflectively reconstructed their own life narratives and achieved a deeper cultural self-understanding through autoethnographic learning on family and women’s culture.

The autoethnographic learning process consisted of three stages: pre-learning, writing an autoethnographic concept note, and preparing a final autoethnographic report. Pre-learning covered the principles of non-violence and pivoting, as well as restorative conflict mediation and dialogue group techniques. Through sharing case studies from films, students also gained experience in managing their own personal narratives. The actual autoethnographic work consisted of concept notes, developing the concept notes, and writing a final report. Throughout this process, the students were provided with example files for reference. From concept note writing to final report writing, the instructor and fellow students provided feedback at every stage. Through the autoethnographic process, students recognized that the values and behavioral practices they had taken for granted were culturally constructed. On the basis of this understanding, they attempted to recognize and analyze the sociocultural contexts and structures that influenced their own modes of existence, as well as their operational mechanisms. Learners developed the ability to critically understand and analyze the values and cultural patterns related to women in their families and society, which they had previously taken for granted, accepted, and conformed to.

The autoethnographic project helped learners develop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mselves as cultural constructs. It also helped them recover their self-identity or establish a desired sense of self-identity. Furthermore, it fostered their capacity to analyze and understand the social conditions and contexts that influenced their lives.

Keyword

Cultural Self-understanding, Creative Convergence Education, Autoethnography, Nonviolence and Pivot Principles, Restorative Conflict Mediation, Family and Women’s Culture